

여름방학은 ACC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고생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23일부터 '전문인교육' 진로 체험
공연기획·건축가 2개 분야 구성
8월부터 '창작워크숍' 작품 제작
LED 무드등 만들기 등 3회 진행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예술 분야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과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5에서 열리는 '여름방학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은 문화예술 관련 진로를 체험하는 심화형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비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공연기획자', '건축가'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로 탐색을 위해 평소 만나기 어려운 공연 기획, 건축, 무대예술 분야 등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작·간접적으로 진로를 체험하고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웠다. 특히 ACC에서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와 연계해 문화예술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참여자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각각

수강인원 15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중·고등학생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3일~26일 진행되는 '공연기획자' 과정은 무대와 관객을 잇는 공연기획자가 돼 나만의 공연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다. 4차시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공연기획 전문가와 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ACC 어린이극장을 방문해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등 공연에 필요한 여러 요소 등을 알아본다.

또 직접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진로를 미리 체험한다.

오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건축가' 과정은 건축가의 시선으로 도시와 공간을 읽고, 사용자의 시선으로 경험을 기록하며 미래 ACC의 모습을 설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4차시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며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안서를 제작하며 진로를 경험한다.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은 오는 8월 7~9일 문화창조원 복합스튜디오에서 열린다. ACC의 창·제작 스튜디오 곳곳을 둘러보고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LED 무드등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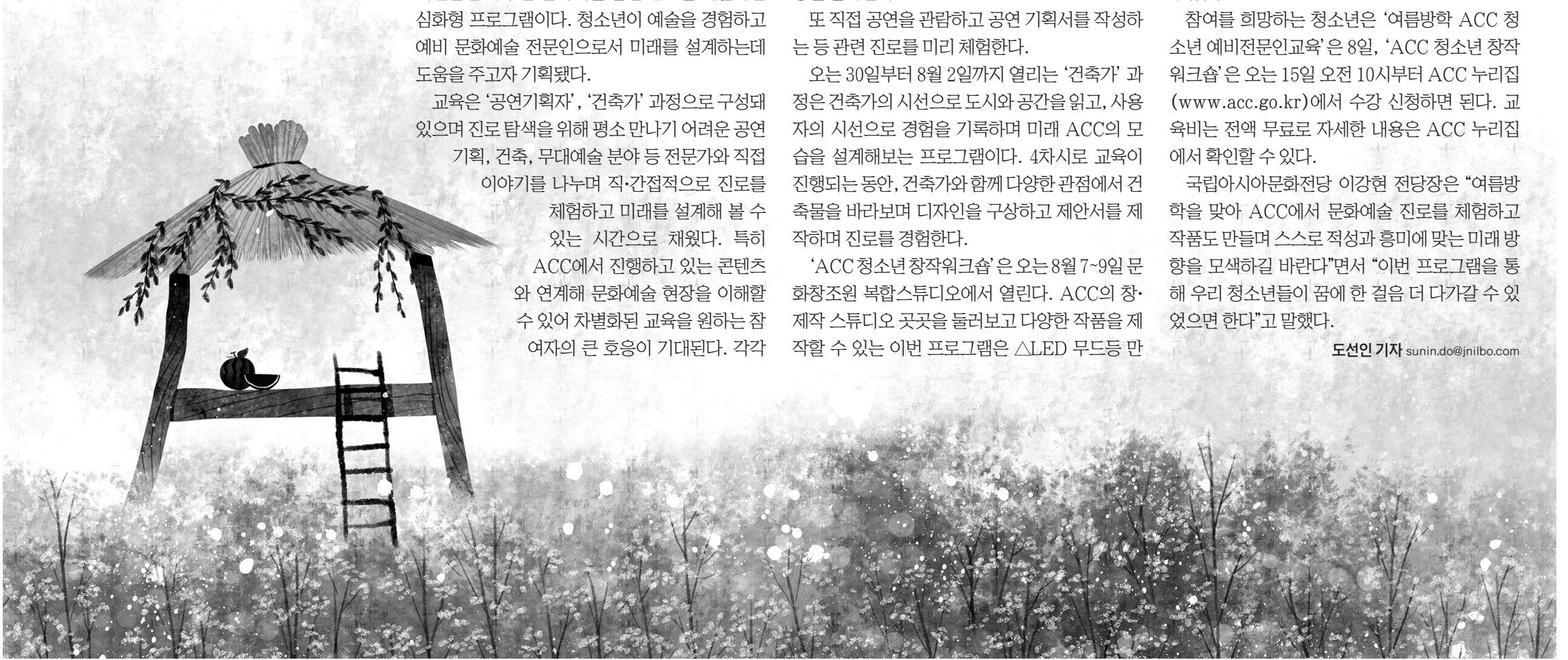
들기 △LED 스탠드 만들기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등 총 3회의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한 회당 수강인원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중·고등학생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ACC 창·제작 스튜디오는 다양한 메이커 장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ACC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참가자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재료 제작부터 완성까지의 창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여름방학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은 8일,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ACC에서 문화예술 진로를 체험하고 작품도 만들며 스스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미래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2회 틴틴버스킹 월드컵' 참가자 모집

31일까지 전국 청소년 대상
10월 ACC 하늘마당 결선

광주시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제2회 틴틴버스킹 월드컵'에 참가할 청소년 버스킹들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제2회 틴틴버스킹'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청소년 버스킹대회이자 광주 동구와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축제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300만원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광주시교육감상이 주어진다.

이번 경연은 노래, 연주, 댄스 등 공연이 가능한 전국의 끼쟁이 청소년(14세~19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공연영상 1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영상을 대상으로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11팀을 선발하며 버스킹 월드컵 마지막 날인 10월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무대에서 결선을 진행한다.

'제2회 틴틴버스킹' 참가자 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광주시동구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망자에게 마지막 찬사 '꽃신 신고 뿔뿔'

13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국악원 순회공연 개최
지역별 '상여소리' 주제 무대

국립국악원은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마지막 축제'인 장례 절차에서 불렀던 지역별 상여소리를 한데 엮은 '꽃신 신고 뿔뿔' 공연을 오는 13일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꽃신 신고 뿔뿔'은 2023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상여소리'를 주제로 제작한 공연이다.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우수공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의 첫 정기공연 작품이었던 이 작품을 김중환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의 안무를 더하고 새롭게 꾸며 순회공연에 맞게 재구성해 선보인다.

'상여소리'는 망자의 슬픔과 그리움을 위로하고 남은 이들에게 힘을 더한다. 상여(喪輿)는 망자(亡者)의 시신을 모지까지 나르는 가마와 비슷하게 생긴 도구로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상여소리'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를 뜻한다. 고인을 보내는 슬픔과 망자를 추억하는 그리움을 달래면서 상여꾼들의 고된 노동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는 '상여소



국립국악원이 오는 13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상여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 '꽃신 신고 뿔뿔'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리'는 우리 음악이 품은 섬세한 감정과 표현의 다양성이 녹아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공연은 서도, 경기, 남도 지역의 상여소리를 비롯해 죽음을 다룬 노래와 음악으로 구성된다. 처연하고 담담한 '서도 상여소리',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노래하는 '경기 상여소리', 흥으로 삶의 미련 날려 보내는 '남도 상여소리'로 삶과 죽음의 정서를 감상할 수 있다. 또 민요 잡가, 판소리, 무속음악 등을 한데 엮어 민속음악에 담긴 삶과 죽음의 조각을 맞춰간다.

공연은 슬픔을 다 내려놓은 듯 처연하고 담담한 북녘의 소리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서도 상여소리'를 시작으로, 삶의

인연과 그로 인해 얹히는 다양한 감정을 노래하는 '경기 상여소리'가 그 뒤를 잇는다. 마지막 '남도 상여소리'에서는 미련까지 뿔뿔 날려 보내는 신명과 다채로운 장단이 어우러져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지역별 상여소리 이외에도 제전과 상고소리, 산별불, 이별가,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과 지전춤,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 등 지역별 민요와 판소리도 함께 선보인다.

유지숙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으로 노랫말 속에서, 삶과 죽음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죽음에 대한 옛사람들의 통찰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서구에 숨은 이야기를 발견해주세요"

'서구 마을이야기' 공모전
10월 31일까지 대상 1명 등

"광주 서구의 역사, 지명, 전설, 인물, 자연, 속담, 노래 등의 다양한 문화유산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습니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해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마을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상한 이야기 등을 찾는 마을이야기 공모전을 갖는다.

제14회 빛고을문예백일장 '서구 마을이야기' 공모전은 서구 관내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의 원형을 기록하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 같은 기록화 작업은 들은 대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구성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창작 이야기를 추가하여도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서구문화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응모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존에 지면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전체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를 각색해 새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콘텐츠는 가능하다.

입상자는 11월 15일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 및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다.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는 서구문화원 누리집(www.gjsg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